



감사한 이야기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김장김치를 가정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원처: 안산온마을센터, OK저축은행, 월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주하운동기념사업회



박순이 선생님께서 초등3~4학년을 대상으로 신문 활용교육(NIE)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재능기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2017년에는 중등부 독서논술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언제나 아이들 위해 마음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후원내역

재능기부

박순이님
극단 이유
초지고 '푸드림'
경안고 '이든나래'



현물기부

고경희 빵 봉사회
꿈이있는 일터
빛과동지
동안산병원
바르게살기안산시협의회
폰네프제과점
파리바게트다농점
파리바게트월피점

현금기부

김경자님, 김미란님
김용희님, 김혜순님
박미경님, 이영식님
임희호님, 정규동님
황유신님, 등대회 등

후원계좌

농협 211066-55-004213
(예금주: 제일행복한)

2016년 4분기 소식지

꿈을 찾아서, 꿈이 있어서, 꿈을 가꾸어

제일 행복한 우리 이야기

친구야 -진호섭

친구야 친구야 같이 가자.
너 따로 나 따로 가지 말고
손잡고 다정히 같이 가자.
가다가 힘들면 너 달이 되고 난 별이 되자.

친구야 친구야 같이 가자.
가다가 힘들면 은하수 많은 물에 세수를 하고
어두운 밤하늘에 환한 빛으로 남자.

차례



센터이야기
칭찬이야기
센터활동계획
얼벌생일현황
주간특별활동
감사한이야기
후원내역



꿈을 찾아서, 꿈이 있어서, 꿈을 가꾸어

제일행복한지역아동센터

The Happiest Community Children Welfare Center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총장로 602, 2층

TEL : 031)485-3827 FAX : 031)485-3828

대표자 : 변선희 고유번호 : 134-80-19051



센터 이야기 1



'오카리나 콩쿨대회 최우수 입상'



지난 11월 12일(토)에 개최한 서울 국제 오카리나 페스티벌 오카리나 경연대회에서 중주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3달간 초청공연, 요양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무대에 오르면서 예행연습을 많이 했어도 다소 긴장된 모습이었었는데 이렇게 멋진 결과를 보여줘서 더욱 자랑스러운 우리 가중주 팀입니다^^ 참 잘했죠? 앞으로 더욱 발전된 연습 기대해주세요!

센터 이야기 2



'2016 월피동 연합발표회 개최'

월피동의 위치한 밀알행복한홍스쿨, 월피맑은샘, 제일행복한지역아동센터가 모여 10월 27일 '제2회 달드는 언덕 아이들의 행복이야기'와 11월 17일 연극발표회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연극발표회는 극단 이유팀과 연계하여 올해 새롭게 진행된 연극프로그램으로서 아이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수료증까지 받아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칭찬이야기



2016년 한 해 동안 총 6회 공연을 했고, 벌써 3년 동안 요양원 악기연주 봉사활동을 해왔네요 ^^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봉사하는 기쁨이 두배라며, 즐거워하는 우리 아이들 기특합니다.

선업 활동 계획

- 1월~2월 독서왕 선발
- 1/21 효경요양원 악기연주 봉사활동 진행
- 1/31~2/3 3박4일 행복감성소년캠프 예정
- 중등 독서논술 수업예정

HAPPY BIRTHDAY

- 10월 ☞ 2일(김상화)
12일(고병찬)
16일(조경훈)
20일(김수한)
- 11월 ☞ 3일(김태훈)
10일(고은결)
13일(김경준)
21일(박수아)
28일(송은하)
- 12월 ☞ 12일(이도현)
12일(이주현)
17일(송운아)

주간 특별 활동

- ☺ 월요일: 축구교실, N.I.E
- ☺ 수요일: 기타교실
- ☺ 목요일: 오카리나교실
- ☺ 금요일: 오카리나 합창교실
- ☺ 토요일: 우쿨렐레
요양원봉사활동



센터 이야기 3



'연극 The Timeist 관람'



아이들과 함께 예술의 전당으로 연극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이 공연은 연극수업을 진행해주신 '극단 이유' 팀이 선보이는 무대로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앞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 아이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센터 이야기 4



'행복나눔 스키캠프'



대한스키협회 지원으로 12월 11일~13일 2박3일 스키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6학년 졸업여행으로 대부분이 1학년때부터 센터를 다닌 터줏대감들이는데, 어느새 성장해 곧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려니 감회가 무척 남다릅니다. 즐거웠던 스키캠프! 우리 20살되면 또 가보자~